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잠언16:1-9)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다. 문제를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답을 가진 것이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 원리대로 살면 응답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것을 증거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삶속에서 누리는 자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다. 개인의 인생속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다. 성경과 똑같은 응답을 받는 것이고 작품을 남기는 것이다. 믿음으로 언약을 잡아야 한다. 기도를 시작하라. 말씀을 예사로 듣지 말라.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틀림없는 사실이니 오늘 언약으로 들어와 지속하시기를 바란다.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지속이 안된다. 하나님 은혜로 잘 잊어버리게 되었지만 언약되어 들어오기를 바란다.

1.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고 그대로 하신다. 잠언도 마찬가지다 사람의 사는 과정 속에 중요한 원리를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 속담, 격언이다. 잠언에는 영적인 원리가 들어있다. 잠언속에는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이 들어있다. 그것을 간단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한 것이다. 오늘 제목으로 잡은 본문 3절이 그렇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이루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성경의 결론이다. 가장 먼저 실천할 곳이 교회이다. 교회는 천국의 지상 모형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제일 첫 번째 장소가 교회이다. 모든 것을 먼저 맡기는 곳이 되어야 한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비난하지 않고 함께 맡기는 것이다. 함께 결과를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께 맡기며 살고 그것으로 증인이 되어야 한다. 되어지는 인생에 대한 증인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맡기는 자세 인생 성공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 우리가 이런 맡기는 것과 함께 또 하나 마음에 담을 것이 있다. 하면 된다는 원리이다. 맡기고 방안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고 약속이 두가지가 동시에 진행된다. 이것은 약속의 근본적인 것이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것이 근본이다. 언약을 누리면 권세가 나타날 것이 근본이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런 약속이 되겠다. 우리는 맡기는 것과 함께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항상 같이 있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두가지는 같은 뜻이다. 이 언약을 누리고 증거를 본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할 것이다. 그런데 너무나 응답이 없을 때에는 많은 이론적인 것으로 결론만 내린 적이 있다. 응답이 없으면 말이 많고 생각도 많고 불평도 많다. 자기 아

는 범위에서 분석하고 이론적으로 증명하듯이 변명 비슷하게 한다. 내가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도 모든일을 하나님께 맡겨야한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하나 사실은 내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다.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둘다를 함께 하는 것이다. 둘다를 함께하면서도 이것이 상충되지 않고 그렇게 누리는 자들에게 응답을 주신다. 내가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 하면서도 내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 완전하게 맡길 수 있어야 한다.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다하셨다는 100% 신앙고백이 있어야 한다. 오늘 성경이 말한대로 네가 하면 내가 할 것이라는 것이다. 밥도 안먹고 방에 누워 있으라는 것이 아니다. 밥을 먹으면 배부른 것은 당연한 것인데 밥도안 먹고 배부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기도도 안하고 응답을 달라는 것과 같다. 율법이 아니고 이미 와있는 은혜이다. 내게 맡기라 네가 하면 내 약속대로 내가 한다 약속대로 이런 원리에 부합되는 몇 구절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다.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이다.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비슷한 내용이다.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뜻이다. 결국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승리, 정복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리 안에 내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늘 살아있다. 내가 하는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부터 받아서 하는 것 이기에 그렇다. 살아있어야 하고 심장이 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이기에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는 것과 네가 하는 것을 이해하라. 힘이 필요하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 했겠지만 힘이 없으면 못 맡긴다. 영적인 힘이 없이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없다.때로는 결심을 해봐도 3일을 못간다. 출발부터 그리스도이다. 또 하나는 기도응답의 경험이 없이는 내 인생을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못 맡긴다. 맡길 힘이 없는 것이다.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믿음으로 맡길 것 인데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 이 힘은 그리스도와 영적인 비밀을 가진 자가 힘이 있고 그 안에서 힘을 아는 만큼 맡길 수 있다. 경험이 없으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이론에 불과하다. 영적인 지식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런 경험 정복 없어도 영적인 확신을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 자리에서 확신 가진다. 그러나 대개에 경우에는 영적인 확신과 구체적인 결과가 함께 온다.이 두가지는 어떻게 가지냐가 관건이다. 이 두가지를 그리스도 누리므로 얻을 수 있다. 분명히 그리스도 누리면 영적인 힘이 나온다. 24시간 하면 그대로 온다. 그 사람에게 응답을 주신다. 옛날에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려고 했다. 틀린 것은 아닌데 핵심에 들어가지 못했다. 과거에는 잘 몰랐다. 그리스도 약속의 피 말만하고 영적인 권세와 정복의 역사가 있는지 몰랐었다. 고백을 하고 언약

으로 잡는 것을 생각을 못했다. 이거 하는 것이 무슨 기도냐고 했지 않은가? 지금 기도시간에 약속의 피 그리스도를 고백하라고 하면 그게 무슨 기도냐고 하는 사람이 꼭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피를 바른날 애굽 완전히 끝났다. 그 피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다. 이것을 잡아 야 하고 그것이 네 기도야! 이것이 들어와야 한다. 이것이 기도이다. 이것이 내 기도제목이다. 믿고 구원받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내 가장 귀중하고 근본적인기도제목이 들어와야 한다. 영적인 힘도 그리스도 누림으로 응답과 승리와 정복도 그리스도 보혈안에 그리스도 고백하고 누리는 간단한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할수 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한 개로 다 하니까. 이 언약 완성하는 것도 내가 죽은것이니 너는 할 것 없다. 매일 그리스도 고백하는 것이다. 인생이 간단하다는 것이다. 이때 모든 것을 말길 수있다. 하루 아침에 다 말기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만 대개 경우 차츰차츰 맡겨진다. 내게 영적인 눈, 힘이있는 만큼 하나님께 말긴다. 모든 것을 다 말기고 진짜로 정말 기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완전 평안, 감사와 행복을 누리게 된다. 우리가 이 놀라운 언약을 바탕으로 24에이르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시간 24 하나님의 소원과 소통이 되는 사람, 당연히 세상은 상상치 못하는 25의응답을 받는다. 누가 흥해가 갈라질줄 알았는가 광야에서 맛나가 내려올줄 누가 알았는가 사자굴에 역사를 본 사람들은 놀랐다. 조그마한 초대교회사 세상을 뒤집었다. 지금도 복음 때문에 뒤집어 지는 사람 많다.

2.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절대주권이다 바뀌는 일이 없고 안되는 일도 없다.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되고 영원히 가고 되돌아 오는 법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절대적이라고 말한다.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못하시는 것이 전혀 없고 안되는 일도 절대 없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무조건되고 아무도 막을 자 없다. 그래서 낫땡, 노바디라고 한다. 언약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한분으로 끝이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본문에 그런 내용이 있다 4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만들고 악인도 악한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악한날 하나님이 심판 하시는 날을 위하여 악인을 준비하셨다.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 있는 말이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피조물은 절대 이해가 안되는 것이다. 이런부분에 대하여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이는 이런 저런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다.그게 맞다는 보장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인간은 대단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은 왜 콩,팥을 심으면 나오는지 설명을 못한다. 당연하다고만 하지 설명해보라고 하면 말을 못한다.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께 대든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죄인이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런데

이유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 감사와 사실이 항상 저변에 깔려있다. 주신 그리스도 너무 감사하게 계속 누리라. 5절에도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 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교만한 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힘을 합쳐도 필요 없다.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없다. 인간은 피조물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창조주 말씀하나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다. 반면 7절에 놀라운 약속이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고 조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원수까지 화목하게 하신다고 이만큼 세상을 절대적으로 통치하시는 것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네가 하려 하지 말고 내게 맡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 오라 마11:28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어떻게 이 말씀이 내 인생에 성취될 수 있을까 말씀은 분명히 기록되어있는데 내 인생은 안맞는데 어떻게 맞을까 길은 하나다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이 매일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또하나 이유가 있다. 안한다 자꾸 잊어버린다. 해도 대충한다 양다리 걸쳐서, 오직이 아니다. 생명을 거는게 아니다. 생명을 걸어야 하는데 확실하게 응답이 오는데 생명을 걸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래서 반복을 자꾸 하는 것이다. 오늘 진짜 눈 열리는 날 되기를 바란다. 그 사람은 진짜 응답받는다. 하나님은 다 해놓으셨으니 원망하면 안된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6시간이나 있었고 고난을 받았으면 되었지 얼마나 더 우리는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다. 완성해 놓았다. 공이 우리에게 넘어온 것이다 치기만 하면 정확하게 넘어간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모든 말씀을 기억을 하고 새로운 언약이 되기를 바란다. 절대 주권자 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다 이루어주실만한 분인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다 이루어주실 만한 분이시다. 모든 악인들에 대한 권세를 가진 분이시다. 인간이 아무리 손을 잡고 바벨탑을 쌓아도 필요없다. 될줄 알고 오만소리 다했다. 이 정도로 통치가 정복이 완전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원수가 찾아올 만큼 증거를 주신다고 하셨다. 진짜 언약되기를 바란다.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라. 너는 할 필요도 없다.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는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방해하는 뱀의 머리를 깨라 놀라운 약속이 성취된다. 체험하시라 확실히 언약이 되도록 체험을 하고 끝까지 가는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가지만 그 인생 끝까지 그리스도 약속의 피로 끝까지 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라. 누리라 내가 하리라. 언약을 잡아라 내가 하리라. 그리고 증언하라.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